

'120만 쓰레기대란' 대책도 '허술'

지자체 인력 태부족...단속 강화 '조폭 개입 음성화' 우려 만연한 불법행위...고형연료(SRF) 품질검사 완화도 걱정 이행보증제 처리단가 현실화·보증범위 확대 근본책 아냐

환경당국의 느슨한 관리가 120만 3000에 달하는 불법폐기물을 양산 해냈다는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다. 정부가 뒤늦게 전수조사까지 해 가며 폐기물 처리 전 과정의 공공관리를 강화하겠다는 대책을 내놨지만, 인력 증원 계획이 수반돼 있지 않아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환경부는 21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89차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불법폐기물 관리 강화대책을 논의·확정했다.

이 대책의 핵심은 폐기물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재활용 수율과 소각 용량을 늘리고 폐기물 처리 전 과정의 공공관리를 강화하는 것이다.

전수조사를 통해 확인된 전국 14개 시·도 235곳의 불법투기·방치된 폐기물 120만3000t 중 41.2%(49만6000t)를 올해 중 처리하고, 나머지 70만7000t(58.8%)은 원인자를 색출해 2022년까지 처리 완료하기로 했다.

그러나 불법 폐기물 관리를 맡게 될 지방자치단체 인력 증원이 빠져 있다는 점이 한계다.

현재도 공무원 1~2명이 수백 개 업체를 관리하고 있는 실정이라 민간 영역에서 담당해오던 생활폐기물까지 손낼 여력이 없다.

또 단속을 강화한다지만 지자체는 권한이 없는 데다 행정대집행도 예산을 이유로 거의 추진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단속 강화가 조직폭력배 개입을 통해 음성화되는 풍조도 우려를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온다.

송형근 환경부 자연환경정책실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지자체 입장에서 현실적 어려움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적절한 인력이 배치되도록 행정안전부와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는 수준의 답변만 내놓았다.

게다가 폐기물 업체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 고형연료(SRF) 품질검사를 완화하는 방안 역시 경기도 내 고형 폐기물 연료(SRF) 제조·사용 업체 3곳 중 1곳이 불법 행위를 해 온 것으로 드러난 상황에서 과연 적합한 것이냐는 지적이 있다.

SRF는 과거 정부가 신재생에너지로 적극 육성했지만 지금은 미세먼지를 배출하는 환경 파괴 주범으로 몰려 애물단지가 됐다. 재활용 업체들은 SRF 수요가 줄고 정부 단속이 강화되면서 그 원료를 쓰이는 폐비

닐을 수거할 이유가 사라졌다. 한국환경공단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전국 가정집에서 나온 폐비닐 41만8000t의 70% 이상은 SRF로 만들어져 발전소 등에 팔리고 나머지는 소각·매립됐다.

송 실장은 "폐기물을 물질 재활용, 에너지 재활용 잔재물 소각 등 세 가지 흐름에 맞게 흘러(처리)갈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지금은 모두

다 막힌 상황"이라며 "SRF 완화와 같이 이 흐름을 조금은 뚫어주는 대책을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전했다.

부도·파산 시 방치 폐기물의 처리 이행을 사전에 보증하는 방치폐기물 이행보증제도'의 처리 단가를 현실화하고, 보증 범위를 현행 허용 보관량의 1.5~3배에서 3~5배로 확대하는 방안도 논란이다.

결국 허용량을 초과하면 이 제도만으로 비용 조달이 되지 않아 처리 업체에 치우게 하거나 행정대집행을 하게 되고, 민간 보증보험과 폐기물처리공제조합으로 이원화 돼 있어 근본적 해법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권병철 환경부 폐자원관리과장은 "2012년 고시 후 유지돼 온 단가와 안전율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적법과 불법 업체 간 이행보증금 차이가 확실히 나도록 설계하려는 것"이라며 "보증보험사는 관리 기능이 없는 만큼 가입 가점을 줘 공제조합으로의 가입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보완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뉴스시



냉이꽃의 봄 나들이 포근한 날씨를 보이고 있는 21일 오전 경남 남해군 남면 한 논두렁에 냉이꽃이 하얀 꽃망울을 터뜨려 싱그러움 가득한 봄소식을 전하고 있다.

광주 어린이집 교사 결핵 확진에 영유아 학부모들 '불안'

광주의 한 어린이집 교사가 결핵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학부모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21일 광주 광산구 등에 따르면, 지난 18일 지역 모 어린이집 보육교사 A(48·여)씨가 결핵 확진 판정을 받았다.

광산구 보건소는 18일 오후 5시 40분 법정 감염병 보고 체계에 따라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구 보건소는 19일 오후 1시30분 질병관리본부 조사관과 해당 어린이집 방문, 역학 조사를 벌였다. 어린이집 교사들은 역학조사가 끝난 뒤 학부모들에게 결핵 발생 사실을 알렸고, 20일 오전 10시30분 질병관리본부 주관으로 설명회를 열었다.

설명회에 참석한 원아(영유아·만 2세 이하) 46명의 학부모 대다수는 불안감을 호소하며 다양한 질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유아의 경우 인체의 저항력이 약한 점, 결핵이 전염성이 강하고 잠복기가 수십 년에 이를 수 있는 점 등을 우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원아 46명과 교직원 10명(보육교사·조리원)은 설명회 전후 X-레이 검사에서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

활동성 폐결핵이 아닌 것으로 확인돼 등원 중인 원아들은 잠복 결핵 여부를 알아보는 피부반응 검사를 두 차례 받는다.

특히 생후 2개월 미만 아동 6명은 검사 결과와 상관 없이 두 달간 결핵예방 치료약을 복용하고 정기

검진을 받아야 한다. 이 때문에 일부 학부모들은 약 처방에 따른 부작용 등도 걱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광산구 관계자는 "학부모들의 원성이 잇따랐다. 철저한 추가 검사를 통해 결핵균 확산을 차단하고 예방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구 보건소는 이날 교직원 10명의 혈액을 채취해 시 보건환경연구원

에 분석을 의뢰했다. 5~7명씩 한 반에서 생활하는 원아들은 22일 피부 검사를 받는다.

기침 등의 증세가 심했던 A씨는 15일까지 근무하고 16일 병원을 찾은 것으로 전해졌다.

임형택 기자

방글라데시 다카 화재로 최소 70명 사망

방글라데시 수도 다카의 구시가지에서 20일 밤 대규모 화재가 발생해 최소한 5채의 건물이 화마에 휩싸이면서 최소 70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방글라데시 관리들과 목격자들이 21일 전했다.

사망자 외에도 약 50명이 부상한 가운데 불길은 21일 오전 7시(한국시간 오전 10시) 현재 큰 불길은 잡혔지만 완전히 진화되지 않고 있다.

다카 소방청의 알리 아흐메드 청장은 화재가 초크바자르 지역의 한 건물에서 발생해 신속하게 확산했다고 말했다. 초크바자르 지역은 좁은 골목을 사이에 두고 건물들이 밀집해 있어 불길이 쉽게 번질 수 있는 곳이며 상점과 식당 창고들이 모여 있는 곳이다.

불탄 건물 곳곳에는 화학물질과 플라스틱들이 쌓여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망자 이외에도 50여명의 부상자가 발생했고, 대부분 심한 화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美, 테러 모의한 해안경비대 대위 체포

미 메릴랜드주에서 해안경비대 대위로 근무하는 한 백인 우월주의자 자택에서 10여명의 총기들과 다량의 탄약, 그리고 저격 대상이 될 민주당 의원들의 명단 등이 발견됐다고 월 스트리트 저널(WSJ) 등 미국 언론들이 20일 보도했다.

WSJ는 크리스토퍼 폴 해슨 대위(49)가 지난 15일 불법 무기 소지 혐의로 체포됐다고 전했다. 그러나 메릴랜드주 법원에 제출된 문서에 따르면 불법무기소지 혐의는 방산의 일각일 뿐이며 해슨은 정부의 신뢰를 저해하기 위한 대규모 국내 테러를 계획하고 있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법원에 제출한 문서에서 "해슨이 무고한 민간인들 살해를 계획했으며 그 규모는 미국 내에선 찾아볼 수 없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해슨은 2017년부터 무기들을 사 모으기 시작했으며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을 비롯해 오카시오-코르테스 하원의원, 리처드 블룸엔탈 상원의원 등 저명한 민주당 의원들과 언론인 등을 저격 대상으로 지목한 명단도 작성했다. 또 워싱턴에서 의원들을 만날 수 있는 최적의 장소 등을 검색한 기록도 발견됐다.

해슨은 백인에 의한 국가 건설을 목표로 국내 테러를 계획했던 것으로 보인다.

IS 마지막 거점서 시리아 민간인들 피난

미국의 지원을 받는 시리아민주군(SDA)이 극단 이슬람 무장조직 이슬람국가(IS)의 마지막 거점 지역인 시리아 동부 바구즈 지역에 대한 막바지 총공세에 나선 가운데 20일(현지시간) 대규모 민간인들이 이 지역을 이탈해 피난한 것으로 알려졌다.

20일(현지시간) BBC 보도에 따르면 시리아 동부 이라크 접경 지역인 바구즈 지역에서 남자, 여성, 어린이를 태운 화물차 15대가 이동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지역을 포위하고 있는 SDA측은 이들 가운데 IS 대원들이 섞여 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곳에는 200여가구에 민간인들이 인간 방패로 잡혀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일부 감시단체는 IS세력이 SIF와 광범위한 협상을 벌여 항복에 동의했다는 소식을 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SIF는 "IS의 항복 협상 소식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고 BBC는 보도했다.

멕시코, 1500억원 상당 코카인 운송선 적발

멕시코 해군이 20일(현지시간) 태평양 연안에서 패속선을 적발해 운반 중이던 코카인 630kg을 압수했다고 밝혔다.

AP통신에 따르면 멕시코 경찰은 지난 18일 멕시코 시날로아 주 알바다에서 4개의 강력 개조 엔진을 장착한 코카인 운반 패속선을 포착하고 블랙호크 헬기 등을 이용해 배를 멈춰 세웠다.

경찰은 에라도르 출신 8명, 콜롬비아 출신 4명, 멕시코 출신 3명 등 15명을 현장에서 체포했다.

남미에서 생산된 코카인은 대개 태평양 연안을 이용해 멕시코 등 중남미 상륙지점으로 도착한 후 육로를 통해 미국으로 밀반입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모두, 안녕하세요?

우리 민력이는요... 자태치료중에 있습니다.

처음엔 많이 놀랐지만, 영유아건강검진으로 일찍 알게 돼서 부모로서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앞으로 어떤 계획을 세워야 하는지 잘 알게 되었습니다.

영유아건강검진 덕분에 안녕이란 말을 다시 돌아옵니다.

대한민국 부모님들, 다들 안녕하시죠?

일반 건강검진

생애건강검진

구강 검진

암 검진

영유아 건강검진

영유아건강검진은 생후 4개월부터 7개월까지의 모든 영유아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연말에는 검진기관이 혼잡하니, 미리 미리 검진 받으세요.

탄생의 순간부터 평생 동안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가 함께 합니다

국가건강검진

보건복지부

h-well 국민건강보험

[콜센터 129] [고객센터 1577-1000]